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원익(032940)

## 유통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동윤정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익(032940)

## 원익 집단의 모기업으로 흡수 합병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 기업정보(2020/11/11 기준)

대표자	장홍식
설립일자	1983년 10월 31일
상장일자	1997년 07월 18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주요제품	산업 원자재, 전자 통신부품, 의료장비

### 시세정보(2020/11/11 기준)

현재가	3,635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660억 원
발행주식수	18,193,230주
52주 최고가	4,425원
52주 최저가	1,895원
외국인지분율	1.2%
주요주주	
이용한	38.2%
호라이즌캐피탈	8.2%

### ■ 반도체 원자재, 전자통신 부품, 의료장비 등의 유통업과 전자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 중

원익(이하 동사)은 원익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 반도체용 산업 원자재, 전자 통신부품, 의료장비 등의 유통업과 전자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와 전자·통신부품 전문기업인 멘텍, 화장품 제조업체인 씨엠에스랩, 상해신이화학제품(중국),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하늘물빛정원, 장산을 중속회사로 두고 있다.

### ■ 센서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

동사는 자회사인 위닉스를 흡수합병한 후 전자 부품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H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 센서 산업은 소재 산업, 소자 산업, 모듈 및 시스템형 산업을 포함하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기와 사물을 서로 인터넷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센서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사물 인터넷(IoT) 사회 구현에서 센서는 인터넷망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술구성 부문을 차지하는 핵심기술로, 그 중 압력 센서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 ■ 반도체 등 전자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

동사는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위닉스와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센서류의 단순 유통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에 그쳐 단기간 내 실적이 개선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672.4	3.8	4.2	0.6	151.6	22.6	10.8	7.4	57.8	1,006	9,871	5.6	0.6
2018	803.0	19.4	27.8	3.5	-824.2	-102.7	-81.7	-46.2	96.6	-5,096	3,736	-	1.1
2019	903.9	12.6	41.6	4.6	465.2	51.5	51.0	29.7	55.7	2,577	6,293	1.6	0.7

## 기업경쟁력

### 원익 집단 모기업으로 사업영역 확대

- 원익 기업집단 모기업으로 집단 내 상장사 6개사, 비상장사 35개사로 총 41개사의 국내계열회사 보유
- 자회사 위닉스와의 합병으로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

### 종속 기업을 통한 다양한 사업 진출

- 씨엠에스랩을 통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
  - H&B스토어, 피부미용 관련 병원, 지방 대리점, 온라인쇼핑몰, 해외 수출(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 하늘물빛정원, 장산을 통해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의료기기 유통을 위한 물류 시스템 및 인프라 보유

-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 사후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수입되는 제품의 입출고검사를 위한 시험시설과 보관시설 보유
  - CRM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고객 불만 접수에서 사후 서비스 처리 등의 제품 이력을 관리

### 전자 부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인프라 보유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전자 부품 생산 공장 확보
- 2017년 7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운영 중
- 상표등록 15건(위닉스 1건 포함) 및 특허등록 1건(위닉스) 보유 (2020.10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기준)

### 주요 사업 분야

- 통상 사업
  - 반도체 사업 관련 자재 및 장비, 산업 자재, 조명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
- 전자 부품
  - 하이브리드 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
- 헬스케어
  - 레이저 장비, 수술용 내시경 장비, 다관절 내시경용 로봇암 등 첨단 의료장비
  - Cell Fusion C, LIC, Suiskin, REPAIRA 등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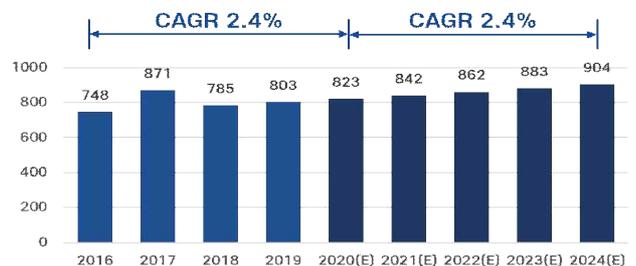
### 매출실적

■ 2019년 매출유형별 비중 (단위: 백만 원, %)

사업 부문	영업 부문	매출액	비중
통상부문	통상 사업	13,489	14.92
	헬스케어	7,571	8.38
	코스메틱	41,518	45.93
전자 부품 부문	전자 부품	19,055	21.08
레저 사업 부문	임대, 음식 서비스	8,754	9.69
총합계		90,387	100.00

## 시장경쟁력

### 국내 수술용 레이저 시장



### 의료기기 및 수술용 레이저 산업 동향

-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는 의료기기 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
- 수술용 레이저는 피부과, 치과, 내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국내 레이저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을 국내 의료기관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을 확대해가는 추세

### 센서 산업은 중간재 성격을 가지는 부품산업

- 센서는 모든 산업에 응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전후방 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
- IoT 등의 발전으로 센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센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최근 변동사항

### 자회사 위닉스의 흡수 합병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위닉스와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센서류의 단순 유통에서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
- 위닉스 측면에서는 합병을 토대로 상장회사의 ERP 시스템, GW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강화, 공시제도 적용으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

# I. 기업현황

## 반도체용 산업 원자재, 전자 통신부품, 의료장비 등의 유통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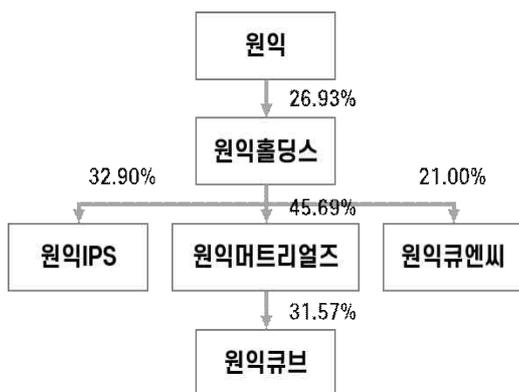
동사는 원익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 반도체용 산업 원자재, 전자 통신부품, 의료장비 등의 유통업과 전자 부품 등의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자회사인 위닉스를 흡수합병하여 HIC 등 전자 부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 ■ 회사 개요

동사는 198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반도체용 산업 원자재, 전자 통신부품, 의료장비 등의 유통업과 전자 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7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반도체용 석영 용기, 반도체용 계측 장비, 조명기기 및 의료장비 등의 유통,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음식 서비스,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반기보고서(2020.06)에 따르면, 동사의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해 있으며,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전자 부품 부문 관련 생산 공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계열사 지분 참여도(상장사 기준)



[표 1] 동사의 주요 연혁

연도	내용
1983	반도체용 석영 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1997	코스닥(KOSDAQ) 시장 상장
1998	원익통상(의료기기 판매업) 흡수 합병 원익으로 상호 변경
2003	반도체용 석영 용기 제조 부문을 인적 분할(원익쿼츠)
2004	주력 사업을 전자-의료기기 판매 사업으로 변경
2019	위닉스(자회사) 합병, 전자 부품 사업 부문 신설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가공

### ■ 관계회사

동사는 원익 기업집단의 모기업으로 집단 내 상장사 6개사(동사 포함), 비상장사 35개사로 총 41개사의 국내계열회사가 있다. 계열사 내에는 반도체 장비 전문업체인 원익홀딩스, 원익IPS, 특수가스정제 업체인 원익머트리얼즈, 석영유리 제조업체인 원익큐엔씨 등의 업체가 있다.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와 전자·통신 부품 전문기업인 맨텍, 화장품 제조업체인 씨엠에스랩, 상해신이화장품(중국),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하늘물빛정원, 장산이 있다.

## ■ 동사의 사업 부문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반도체용 산업 원자재, 조명기기 등을 유통하는 통상부문, HIC 칩 등의 전자 부품, 압력 센서 등을 제조, 유통하는 전자 부품 부문, 의료장비를 유통하는 헬스케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식 서비스,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사우나업을 영위하고 있는 레저 사업 부문(종속회사)이 있다.

### ▶ 통상 사업 부문

반도체 사업 관련 자재 및 장비, 산업 자재, 조명기기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세부 품목으로는 반도체용 석영 용기 등 석영유리 제품, CPVC(염화 폴리 비닐 염화물), 조명기기(램프류, 등기구, LED 조명 등) 및 반도체 제조용 계측 센서(Cyber Optics Wafer-sensor), 가스 분석 장치 등이 있다.

석영유리 제품(Quartz-glass Products)은 미국 석영 공급사인 모멘티브사(Momentive Performance Technology)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태양 전지 전문업체, 금강퀴츠, LG실트론 등에 공급하고 있다. 조명기기 부문은 방전관 및 조명 원자재 등의 부속품, 일반 조명제품(램프류), 등기구, LED 조명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취급하고 있다.

### ▶ 전자 부품 부문

전자 부품 부문은 2019년 12월 자회사인 위닉스를 흡수합병하며 편입된 사업으로 동사는 하이브리드 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 HIC 칩의 경우 센서, 정보통신, 자동차, 전원 공급 장치(SMPS), 전기장치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주로 압력 센서 분야를 주력으로 국내외 전자 부품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 ▶ 헬스케어 부문

헬스케어 부문은 의료장비 부문 및 코스메틱 부문으로 구성된다. 의료장비 부문은 HOLMIUM 레이저 장비, 수술용 내시경 장비, 다관절 내시경용 로봇 암(Arm) 등 첨단 의료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사업이며, 주로 대형 및 소형 병원에 공급되고 있다. 동사는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사후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수입되는 제품의 입출고검사를 위한 시험시설과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CRM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고객 불만 접수에서 사후 서비스 처리 등의 제품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코스메틱 부문은 종속회사인 씨엠에스랩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으로 Cell Fusion C, LIC, Suiskin, REPAIRA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Cell Fusion C, LIC 브랜드는 각종 병·의원과 거래하고 있으며, Suiskin, REPAIRA 브랜드는 온라인몰, 홈쇼핑 등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 ▶ 레저 사업 부문(종속회사)

동사의 종속회사인 하늘물빛정원과 장산은 충남 금산군 소재에 F&B 사업 및 참숯 가마 허브 찜질방, 클램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일차는 자체 소유한 국제전자센터빌딩 내 상가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임대, 사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 동사의 주요 사업

	통상 사업 부문	전자 부품 부문	헬스케어 부문
주요 제품	산업 자재, 조명기기 등	HIC 칩, 압력 센서 등	HOLMIUM 레이저 장비, 수술용 내시경 장비 등
제품 사진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2020.10),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가공

### ■ 동사의 매출 구성

동사의 2019년 말 기준 매출은 헬스케어 부문 8.38%, 통상 부문 14.92%, 코스메틱 45.93%, 전자 부품 부문 21.08%, 레이저 사업 부문 9.69%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 중 통상 사업 부문 2019년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2.8% 감소하였고, 매출 비중 역시 6.84% 감소하였으나, 헬스케어 부문의 2019년 매출액은 2018년 대비 55.37% 증가하였으며, 매출 비중 역시 2.31% 증가하였다. 코스메틱 부문의 경우 2018년 대비 매출액, 비중은 각각 35.49%, 7.77% 증가하였으며, 전자 부품 부문의 경우 매출액은 4.16% 증가하였고, 매출 비중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레이저 사업 부문의 경우 매출액 및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 동사의 사업 부문 매출 비중

(단위: 백만 원, %)

사업 부문	영업 부문	2020년 반기		2019년		2018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통상 부문	통상 사업	7,150	15.01	13,489	14.92	17,473	21.76
헬스케어 부문	헬스케어	2,517	5.28	7,571	8.38	4,873	6.07
	코스메틱	21,673	45.50	41,518	45.93	30,642	38.16
전자 부품 부문	전자 부품	13,681	28.72	19,055	21.08	18,294	22.78
레이저 사업 부문	임대, 음식 서비스	2,614	5.49	8,754	9.69	9,014	11.23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사업보고서(2019.12), NICE디앤비 재가공

## II. 시장 동향

### 새로운 센서에 대한 수요 생성 및 기존 센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센서 시장 성장세

동사는 자회사인 위닉스를 흡수합병한 후 H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 국내 센서 시장은 고품질, 고성능의 새로운 센서에 대한 수요가 생성되고 있어 센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센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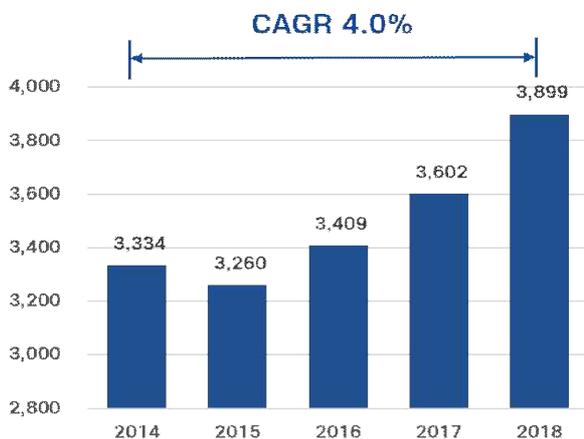
#### ■ 세계 및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지속해서 성장 중

동사의 주요 사업 중 헬스케어 부문의 주요 제품은 수술용 레이저 장비, 내시경 장비 등이 있다. 의료기기 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해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산업으로 세계적인 노령화와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는 의료기기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청(KFDA)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며, 해외의 경우에도 CE, FDA 등의 인허가가 필수 요건이다. 또한,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적합심사(KGMP) 절차 등에 있어서도 많은 규제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품질 유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제조 공정상 클린룸 등의 특수 시설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다년간의 임상자료 등이 요구되어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산업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7년 대비 8.2% 증가한 약 3,899억 달러로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연평균 9.2%의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9년 7조 8,039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액은 2019년 4조 8,49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나타났으며, 수출액의 경우 연평균 8.97%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2019년 4조 3,245억 원의 규모를 형성하였다.

[그림 2] 세계 의료기기 산업 동향 (단위: 억 달러)



[그림 3] 국내 의료기기 산업 동향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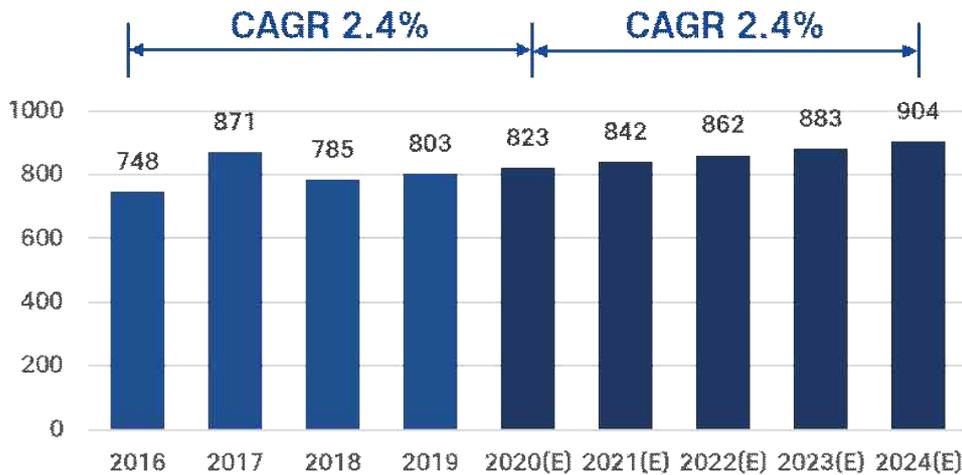
\*출처: 2019년 의료기기 산업 분석 보고서(2019.1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 수술용 레이저 산업은 미국, 유럽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보건산업 통계(2019)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술용 레이저 시장은 2016년 748억 원에서 연평균 2.4% 성장하여 2018년 785억 원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2.4% 성장하여 2024년에는 904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국내 수술용 레이저 시장

(단위: 억 원)



\*출처: 의료기기 보건산업통계('16~'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ICE디앤비 재구성

수술용 레이저의 경우, 인체 조직의 특정 성분에 집중적으로 흡수되어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혈의 국소적 치료가 가능하며 통증이 적고, 감염의 위험이 적은 특징 때문에 피부과, 치과, 내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수술용 레이저 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기술경쟁력을 갖춰 국내 의료기관에 시장을 형성하고 점점 시장을 확대해가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수술용 레이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으로 수술용 레이저의 주요 수요처인 병원, 의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이나 신생회사의 제품에 대한 구매가 적은 편이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 **반도체용 전공정/후공정 소재 시장은 소폭 감소 중**

동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용 석영유리 제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도가니, 공정 부품,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등으로 사용된다. 동사의 반도체용 석영유리(Quartz Ware)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산화, 식각, 이온 주입, 증착 공정에서 웨이퍼를 불순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송하는 용기로 사용되며, 제조 공정별로 Tube류, Boat류, Pedestal류, Ring류 등의 형태로 제조된다.

반도체 소재는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재료, 소자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가스와 화학약품, 소자를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등을 포함하며, 크게 공정 소재와 부품으로 분류된다. 공정 소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로 웨이퍼, 식각액, 가스 등이 포함되고, 부품은 반도체 제조 시 간접적으로 소모되는 소재로 주로 반도체 장비의 소모품인 튜브, 링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뉜다. 전공정과 후공정의 소재 산업의 비중은 각각 58%, 42%를 차지해 전공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산업은 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소재의 국산화율은 50%에 이르고 있으며, 전공정 소재(46%)보다 후공정 소재(56%)의 국산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SEMI)의 최신 반도체 재료 시장 보고서(2020.03)에 따르면, 2019년 전공정(front-end) 소재 시장 규모는 2018년 330억 달러에서 약 328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며, 후공정인 패키징 소재 시장 규모는 2018년 197억 달러에서 2019년 약 192억 달러로 2.3% 축소됐다.

**[표 4] 반도체 소재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

지역	2018	2019	성장률
대만	116.2	113.4	-2.4
대한민국	89.4	88.3	-1.3
중국	85.2	86.9	1.9
일본	78.0	77.0	-1.3
기타 지역	62.1	60.5	-2.6
북미	57.3	56.2	-1.8
유럽	38.9	38.9	0
<b>총계</b>	<b>527.3</b>	<b>521.4</b>	<b>-1.1</b>

**[그림 5] 2019년 국가별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반도체 재료 시장 보고서(2020.03),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SEMI),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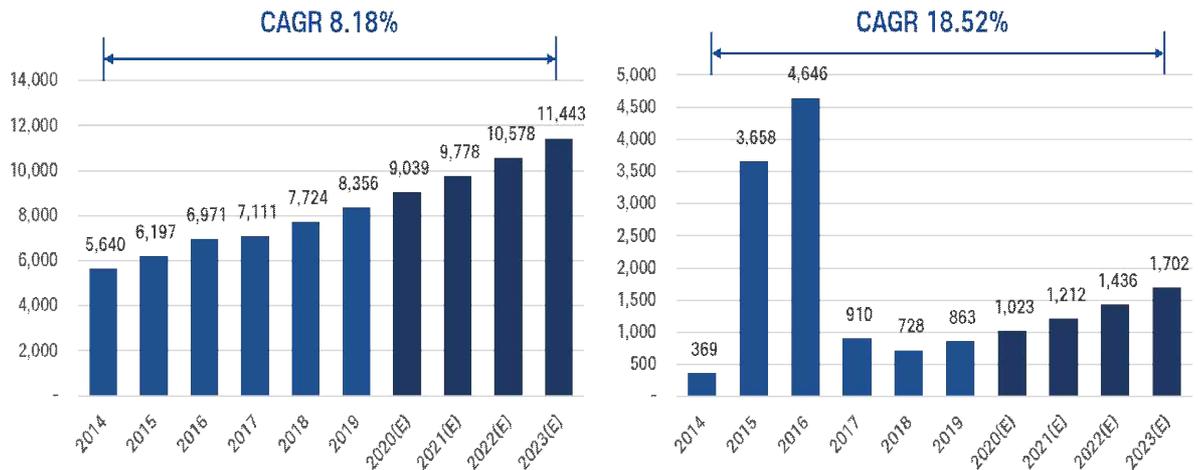
**■ 센서 산업은 중간재 성격을 가지는 부품산업으로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 첨단화에 기여하는 차세대 핵심 산업**

동사는 2019년 12월 자회사인 위닉스를 흡수합병한 후 전자 부품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H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취급하고 있다. 센서는 측정 대상물로부터 압력, 온도, 가속도, 생체신호 등 정보를 감지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인간이 오감을 통해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처럼 다양한 전자기기가 정보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다.

센서 산업은 센서 제조를 위한 소재 산업, 소재를 이용해 고유 기능이 구현된 소자 산업, 여러 개의 소자를 사용해 조립한 모듈 및 시스템형 산업을 포함한다. 센서는 최종 재화로서 사용되기보다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취득, 감지하는 도구로써 중간재 성격을 가지므로 전형적인 부품산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센서는 모든 산업에 응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전후방 산업은 물론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산업의 자동화, 정보화, 첨단화에 기여함으로써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 IoT 등의 발전으로 센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센서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림 6] 국내 센서 및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HIC) 출하금액 (단위: 억 원)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 조사(품목 편) (2020.10 기준), NICE디앤비 재가공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 조사(품목 편)(2020.10 기준)에 따르면, 국내 센서 출하금액은 2014년 5,640억 원에서 2018년 7,724억 원으로 연평균 8.18% 증가하였으며, 동 CAGR을 적용 시 2023년에는 1조 1,443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출하금액은 2014년 369억 원에서 2018년 728억 원으로 연평균 18.52% 증가하였으며, 동 CAGR을 적용 시 2023년에는 1,702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기와 사물을 서로 인터넷으로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센서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고, 센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전통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 산업은 최근 화두가 되는 사물 인터넷(IoT) 사회 구현에서 센서는 인터넷망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술구성 부문을 차지하는 핵심기술로, 그 중 압력 센서의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모바일 및 지능형 자동차 등에서 IT 제품들이 빠르게 소형화, 슬림화, 저전력화 및 지능화로 이행함에 따라 압력 센서도 이런 시스템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기술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폰,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고품질, 고성능의 새로운 센서에 대한 수요가 생성되고 기존 센서 대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센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센서 시장은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Ⅲ. 기술분석

#### 전자 부품 제조 및 의료기기 등 유통 사업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

동사는 전자 부품 생산 공장을 확보하여 하이브리드 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첨단 의료장비 유통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 사후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의료기기란 사람/동물에게 단독으로 혹은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동사는 통상부문, 전자 부품 부문, 헬스케어 부문 및 레이저 사업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주요 제품 중 레이저 수술기(헬스케어 부문), 전자 부품 부문에 관한 기술을 분석하였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2. 등급의 지정절차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의 대분류(4개)는 (A) 기구·기계(Medical Instruments), (B) 의료용품(Medical supplies), (C) 치과 재료(Dental Materials), (D) 체외진단용 시약(IVD Reagents)으로 분류하고, 중분류(142개)는 각 대분류 군을 원자재, 제조 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분류하며, 이는 2,218개의 소분류로 세분된다.

[그림 7] 의료기기 품목 분류

(A) 기구·기계	A01000 A02000	A37010 범용 레이저 수술기
(B) 의료용품	⋮	A37020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
(C) 치과재료	A37000 레이저 진료기	
(D) 체외진단용 시약	A90000 A91000	A37030 레이저(광) 조사기

\*출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NICE디앤비 재가공

[표 5] 레이저 수술기의 분류

중분류	소분류
범용 레이저 수술기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 색소 레이저 수술기, 아르곤 레이저 수술기,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크립톤 레이저 수술기, 루비 레이저 수술기, 구리 증기 레이저 수술기,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수술기, 홀뮴 야그 레이저 수술기,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 등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	안과용 아르곤 레이저 수술기, 안과용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 안과용 크립톤 레이저 수술기, 안과용 반도체 레이저 수술기, 안과용 홀뮴 야그 레이저 수술기 등
레이저(광) 조사기	자외선 조사기, 신생아 황달 치료용 조사기, 적외선 조사기, 고출력/저출력 광선 조사기, 펄스 관선 조사기, 치아 미백용 광선 조사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개인용 자외선/적외선/광선 조사기

\*출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NICE디앤비 재가공

**■ 비뇨기과, 신경외과, 치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홀뮴 레이저 수술기**

레이저 수술기는 라식수술과 같은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와 전립선, 후두암, 심장 수술 및 비염 치료 등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 레이저 수술기로 분류된다. 수술용 레이저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혈효과가 크고 통증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치료 및 회복 기간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 현장에서는 레이저 수술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레이저 수술기의 경우, 인체 조직의 특정 성분에 집중적으로 흡수되어 주변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혈의 국소적 치료가 가능하며 통증이 적고, 감염의 위험이 적은 특징 때문에 피부과, 치과, 내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술 및 수술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분야이다.

동사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사용되는 홀뮴 야그 레이저 수술기를 취급하고 있다. 홀뮴 레이저는 2,140nm의 레이저 파장을 통해 수분과 수분이 풍부한 조직에 신속하게 흡수되어 열을 분산시키는 레이저로 조직에 침투하는 깊이가 0.4mm로 얇아 레이저의 에너지가 조직이 응고되는 정도를 적게 하면서 기화시킬 수 있다.

홀뮴 레이저는 주로 비뇨기과, 신경외과, 치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전립선 조직을 정확하게 절단하고 벗겨내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중 작은 혈관을 응고시켜 지혈효과가 있다.

**[표 6] 동사의 주요 의료기기 제품**

홀뮴 야그 레이저 수술기	수술용 내시경	다관절 내시경 홀더
<p>HOLMIUM SURGICAL LASER</p>  <p>Lumenis</p>	<p>SURGICAL ENDOSCOPE</p>  <p>STORZ KARL STORZ - ENDOSKOP</p>	<p>PNEUMATIC SEMI-ROBOTIC ARM</p>  <p>MITAKA KOHKI Co., Ltd.</p>

\*출처: 동사의 회사소개서,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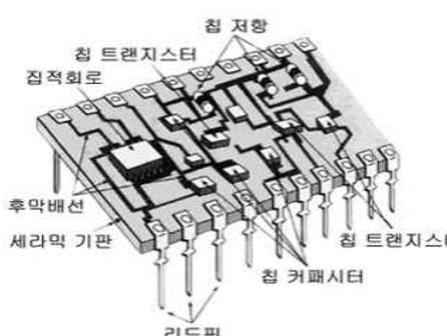
**■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 중**

동사는 홀뮴 레이저 장비를 비롯하여 수술용 내시경 장비, 다관절 내시경용 로봇 암(Arm) 등 첨단 의료장비를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동사의 제품은 주로 대형 및 소형 병원에 공급되고 있다. 동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의료기기 수입업, 판매업, 수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사후 품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수입되는 제품의 입·출고 검사를 위한 시험시설과 적절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CRM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고객 불만 접수에서 사후 서비스 처리 등의 제품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 고전압, 다품종 소량 생산, 짧은 납기 등의 장점을 보유한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HIC)는 세라믹·알루미늄(알루미나, Al<sub>2</sub>O<sub>3</sub>) 등 기판상에 Screen 인쇄기법으로 얇은 막의 회로(도체, 저항체, 절연체, 보호막 등)를 형성하고, 그 위에 각종의 IC 또는 IC와 개별소자(인덕터와 콘덴서·트랜지스터)를 조합한 한 개의 부품으로 만드는 집적화된 회로 부품이다. 막 집적 회로(film IC)에 트랜지스터 같은 개별소자와 모노리식(Monolithic) 칩들을 함께 조립하여 제작하며, 막 집적 회로는 절연 기판 위에 스크린 인쇄 기술로 저항기나 커패시터와 같은 수동 소자를 배선과 함께 형성한다.

하이브리드 IC는 모노리식 IC로 제작하기 어려운 수동 소자를 막 집적 회로에 조립하여 제조됨으로서, 고전압, 다품종 소량 생산, 짧은 납기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대체로 모노리식 IC는 같은 회로가 많은 디지털 회로에 적합하다면, 하이브리드 IC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아날로그 회로에 적합하다.

[그림 8] 하이브리드 IC 구성	[표 7] 하이브리드 IC/ 모노리식IC 차이점			
		<table border="1"> <thead> <tr> <th>하이브리드 집적 회로</th> <th>모노리식 집적 회로</th> </tr> </thead> </table>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모노리식 집적 회로
하이브리드 집적 회로	모노리식 집적 회로			
제조 공정	간단함	복잡함		
생산 형태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	다품종 소량 생산 불가		
개발비	적음	높음		
제조설비 투자비	적음	높음		
사용 전압	높음	낮음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모아통신(주), NICE디앤비 재가공

■ 자동차, 센서, SMPS, 통신부품 등에 사용되는 동사의 HIC

동사가 제조하는 하이브리드 IC는 주로 자동차, 센서, SMPS, 통신부품 등에 사용된다. 동사의 하이브리드 IC는 수지 또는 페놀, 기타 도포용 재료 등을 사용하여 몰딩 형태로 외관을 감싸거나, 폴리머나 글라스 등의 재료를 써서 회로를 보호한다. 고객의 요구 사양에 따라 단자 형태가 정해지며, 단자는 리드프레임이나 와이어 또는 핀 등으로 형성된다.

동사의 하이브리드 IC의 제조 공정은 기판 인쇄, 소성, 트리밍, 리플로, 와이어본딩,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에 위닉스가 운영하던 전자 부품 생산 공장을 확보하여 하이브리드 IC 칩, GPS 안테나, 압력 센서 등의 전자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2017년 7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술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동사 명의의 상표 등록 14건과 위닉스 명의의 상표 등록 1건 및 특허권 1건을 확보하여 핵심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다. (2020.10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기준)

[그림 9] 동사의 하이브리드 IC 제조 공정



\*출처: 동사 회사소개서,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0] SWOT 분석



## IV. 재무분석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시장가 하락 및 전방산업 위축으로 매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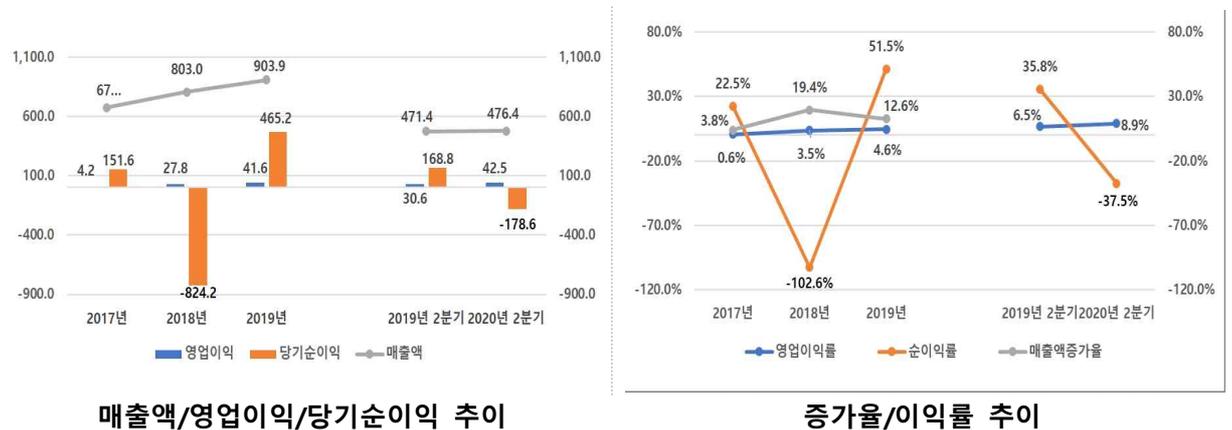
HIC RF Filter 및 GPS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의 판매 위축과 레이저부문의 부진 등으로 2020년 상반기 매출 규모는 전년 수준으로 정체되었고, 관계기업투자손실 증가로 2020년 상반기 순이익은 적자 전환하였다.

#### ■ 헬스케어 및 통상부문이 동사의 매출 견인, 다만 성장 폭 둔화세

동사는 크게 4개의 사업 단위로 구성된 가운데, 의료장비, 화장품을 취급하는 헬스케어 부문, 조명기기, 반도체, 전기, 전자, 통신용 원료 및 부품, 반도체 계측 장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통상 부문, 하이브리드 IC, RF Filter, GPS, Set top-Box 등 전자통신 부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자 부품 부문, 음식 서비스 및 숙박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등의 레이저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2019년 매출액 기준 헬스케어 부문 8.38%, 통상 부문 14.92%, 코스메틱 45.93%, 전자 부품 부문 21.08%, 레이저 사업 부문 9.69%로 매출 비중을 각각 나타낸 바, 헬스케어 부문 및 통상 부문이 2019년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였다. 한편, 동사는 수출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비중은 2017년 28.6%, 2018년 25.0%, 2019년 22.9%를 각각 나타내며 그 비중이 감소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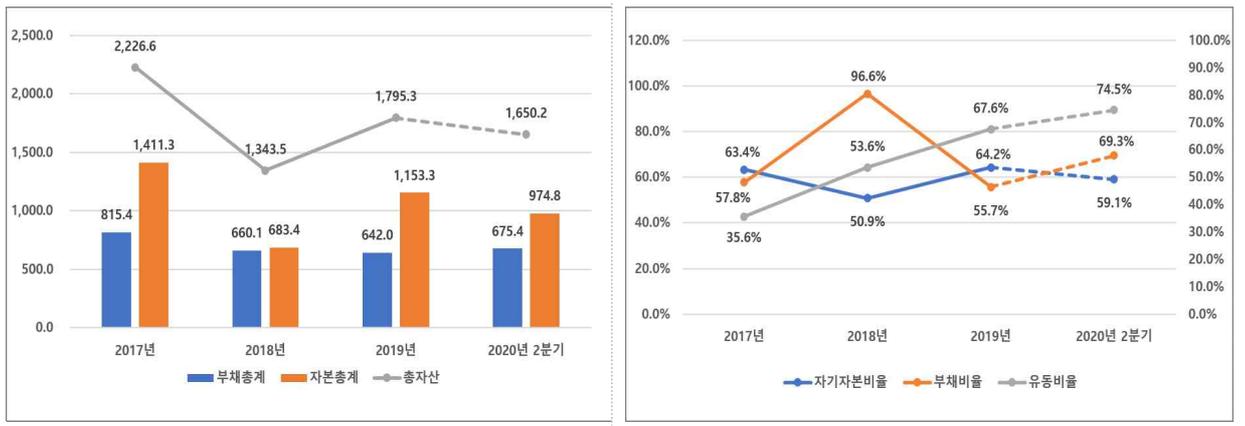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의 H&B 온, 오프라인 스토어 및 면세점 등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선풍전씨 선크림 제품군의 확대로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471.4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한 476.4억 원을 기록하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화장품 수요 감소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12] 동사 연간 및 반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구조의 안정성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화장품 판매의 안정적인 정착, 영업수익성 3개년 개선세

동사가 지분의 97.41%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씨엠에스랩의 주요 상품인 셀퓨전씨 선크림의 B2C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매출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3개년 매출액증가율이 2017년 3.8%, 2018년 19.4%, 2019년 12.6%를 각각 기록하였고 매출액은 600억 후반에서 900억 초반대로 성장하였다. 한편, RF Filter, GPS 등의 전자 부품 부문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장비의 판매 위축과 레이저 부문의 부진 등으로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476.4억 원에 그치며 매출 정체를 나타냈다.

최근 3개년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성 경비 부담의 감소와 더불어 판매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성이 개선세를 보이며 매출액영업이익률 2017년 0.6%, 2018년 3.5%, 2019년 4.6%, 영업이익 2017년 4.2억 원, 2018년 27.8억 원, 2019년 41.6억 원을 각각 기록하였다.

한편, 2018년 관계회사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을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손실 824.2억 원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9년 관계회사 지분증권의 공정가치 상승으로 인한 손상차손 환입 영향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465.2억 원을 기록하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였다.

■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와 비슷한 매출 외형 기록, 순이익 적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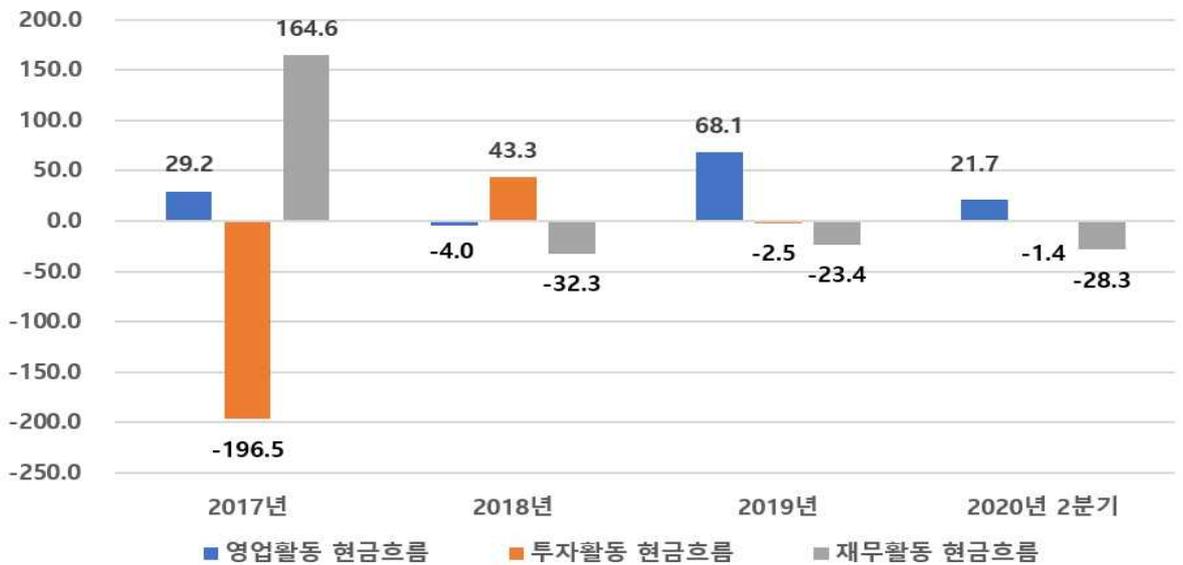
종속회사 씨엠에스랩의 주력 상품인 셀퓨전씨 선크림 제품군 확대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및 통상부문이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의 65.8%를 차지하며 동사 매출의 과반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병원의 장비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고,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한 화장품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 헬스케어 매출이 전년도 327억 원에서 313억 원으로 감소하며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은 476.4억 원에 그쳤다. 판매비 부담의 완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으나, 관계기업투자손실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37.5%로 적자 전환하였다.

■ 2019년 흑자 기록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 양(+)<sup>1)</sup>의 값 전환

최근 3개년 영업활동현금흐름 값이 2017년 29억, 2018년 -4억, 2019년 68억 원을 각각 나타내며, 등락세를 보였고, 이는 순이익의 구조와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2019년 순이익의 흑자 기록과 더불어 감가상각비 등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등에 따라 201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68.1억 원을 기록하며 양(+)<sup>1)</sup>의 값을 기록하였다. 한편,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등의 투자 활동 현금흐름과 차입금의 상환 등의 재무 활동 현금흐름에 필요한 자금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충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기초현금 18억 원에서 기말현금 60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림 13]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단위: 억 원)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12), 동사 반기보고서(2020.06), NICE디앤비 재구성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규모가 감소세를 보여 실적 개선 여부 불확실

동사는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위닉스와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며,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친 바, 단기간 내 실적이 개선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 자회사 위닉스의 흡수 합병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

동사는 전자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위닉스와의 합병을 통해 반도체 센서류의 단순 유통에서 탈피하여 반도체 부품의 직접 개발 및 제조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다. 동사는 위닉스와의 합병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현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여 주주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위닉스 측면에서는 합병을 토대로 상장회사의 ERP 시스템, GW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강화, 공시제도 적용으로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 ■ 종속회사인 씨엠에스랩의 신제품 출시 및 실적 개선 등을 통한 매출 상승세

동사는 종속회사인 씨엠에스랩을 통해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 코스메틱 화장품 사업을 하는 씨엠에스랩은 동사와 의료기기를 거래하던 각종 병·의원과의 거래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씨엠에스랩은 셀퓨전씨(Cell Fusion C), LIC, 스위스킨(Suiskin), 리페라(REPAIRA) 등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셀퓨전씨 엑스퍼트` 라인 등의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화장품뿐 아니라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품도 개발, 런칭하고 있다.

#### ■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은 전년 수준에 그쳤고, 관계사 투자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발생

첨단 의료장비 및 반도체, 조명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헬스케어/통상부문과 전자 부품 부문, 레저부문으로 사업 단위가 나뉘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메틱 부문의 국내 피부미용 관련 병원 직판과 H&B 스토어, 온라인쇼핑몰 및 해외 판매를 통한 영업망 확대로 최근 3개년 매출 외형이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다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수출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수준에 그친 바, 단기간 내 실적이 개선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3개년 매출 확대에 따른 고정성 경비 부담의 감소와 판매수수료 인하 등에 힘입어 영업 수익성이 개선세를 나타냈고, 2019년 흑자 전환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 또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다만, 2018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도 관계회사인 (주)원익홀딩스의 주가 등락에 따라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